

【어원 탐구】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어원 몇 가지(2)

조항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우리말에는 욕설이 대단히 많다. 네티즌들은 이 욕설의 어원에 특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높은 관심에 부응할 만큼 충분하고도 적합한 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욕설에 대한 다양한 어원설이나 유래설이 인터넷상에 자주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욕설 어원에 대한 믿을 만한 성과가 없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욕설 어원에 대한 성과가 미진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욕설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논의를 기피했는지 모르지만, 혐오감을 주는 욕설이라고 해서 연구 대상에서 멀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욕설이 원초적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종류의 어휘보다 먼저 그 어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말 욕에는 천시되고 무시되는 대상을 이용한 욕(예. 개새끼, 돼지새끼, 후레자식), 모두가 경멸하는 행동을 이용한 욕(예. 빌어먹을, 떡을 할), 참혹한 형벌을 이용한 욕(예. 육시랄, 오사랄), 욕을 받는 사람의 ‘어머니’를 이용한 욕(예. 네미, 제미, 네미랄, 제미랄), 무시무시한 ‘병’을 이용한 욕(예.

염병할)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다양한 욕설 가운데 그 몇 개를 대상으로 어원을 밝혀보기로 한다.

II

1. 네미·제미·네미랄·제미랄

‘네미’와 ‘제미’, 그리고 ‘네미랄’과 ‘제미랄’은 욕을 받는 사람의 ‘母(모)’를 지시하는 단어를 이용한 욕설이다. 말하자면 욕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끌어들이는 욕이다.

‘네미’는 ‘너의 어미’라는 뜻의 ‘네 어미’가 줄어든 어형이고, ‘제미’는 ‘자기 어미’라는 뜻의 ‘제 어미’가 줄어든 어형이다. 이러한 조어 구조만 놓고 보면 ‘네미’나 ‘제미’가 욕설로 이용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네미’가 ‘네 어미를(와) 붙을 놈’, ‘제미’가 ‘제 어미를(와) 붙을 놈’이라는 통사 구조에서 변형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욕이 얼마나 심각한 욕인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어미를(와) 붙을 놈’이나 ‘제 어미를(와) 붙을 놈’에 쓰인 ‘붙-’은 ‘교접하다’의 뜻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네 어미와 교접할 놈’, ‘제 어미와 교접할 놈’으로 해석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 표현이 된다. 도대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다니 말이 되는가.

‘네 어미를(와) 붙을 놈’은 ‘네 어미’가 줄어들고, 목적격 ‘-를’이 탈락한 뒤, ‘놈’이 생략되어 ‘네미 붙을’이 된다. ‘제 어미를(와) 붙을 놈’ 또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제미 붙을’이 된다. 사전에서는 흥미롭게도 ‘제미 붙을’을 한 단어로 인정하여 표제어로 실고 있다.

‘네미 붙을’, ‘제미 붙을’과 유사한 어형으로 ‘할미 붙을’도 있어 주목된다. 이는 ‘할미를(와) 붙을 놈’ 구조에서 목적격 ‘-를’이 탈락하고 ‘놈’이 생략된 뒤 나타난 어형으로 ‘할머니와 교접할 놈’이라는 뜻이다. ‘네미 붙을’이나 ‘제미 붙을’보다 그 충격이 크면 컸지 덜하지는 않다.

‘네미 붙을’에서 ‘붙을’이 생략된 어형이 ‘네미’이고, ‘제미 붙을’에서 ‘붙을’이 생략된 어형이 ‘제미’이다. ‘네미’가 ‘네 어미를(와) 붙을 놈’으로까지 소급하고, ‘제미’가 ‘제 어미를(와) 붙을 놈’으로까지 소급하므로 ‘네미’는 ‘네미 붙을’, ‘제미’는 ‘제미 붙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 기원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들 ‘네미’나 ‘제미’보다 심한 욕설은 없어 보인다. 사전에서 이들을 ‘남을 경멸하거나 저주할 때 쓰는 아주 심한 욕’이라고 풀이한 이유를 알 만 하다.

‘네미’, ‘제미’와 비슷한 성격의 욕으로 ‘네밀할/네미랄’, ‘제밀할/제미랄’도 쓰인다. 이들은 ‘네 어미를 할 놈’과 ‘제 어미를 할 놈’이라는 구조까지 소급해 올라간다. 여기에 쓰인 ‘하다’는 ‘붙다’와 같이 ‘교접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이들도 ‘네 어미와 교접할 놈’, ‘제 어미와 교접할 놈’으로 해석되어 반인륜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이들 ‘네 어미를 할 놈’과 ‘제 어미를 할 놈’ 구조에서 ‘네 어미를 할’과 ‘제 어미를 할’이 줄어들어 ‘네밀할 놈’과 ‘제밀할 놈’이 만들어지고, 다시 ‘네밀할 놈’과 ‘제밀할 놈’에서 ‘할’의 ‘ㅎ’이 탈락하여 ‘네미랄 놈’과 ‘제미랄 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네밀할 놈’과 ‘네미랄 놈’, ‘제밀할 놈’과 ‘제미랄 놈’에서 후행하는 ‘놈’이 생략되어 ‘네밀할/네미랄’, ‘제밀할/제미랄’이라는 욕이 만들어진다.

이들 ‘네밀할/네미랄’이나 ‘제밀할/제미랄’은 앞서 살핀 ‘네미’나 ‘제미’와 그 의미가 같다. 아울러 심한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때 내뱉는 욕설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도 같다.

이렇게 해서 ‘네미’와 ‘제미’, ‘네밀할/네미랄’과 ‘제밀할/제미랄’이라는 욕설이 만들어진 과정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자기 어머니와 성 관계를 맺는 패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줄어들고 생략된 어형이더라도 이러한 욕을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2. 염병할(染病-)

‘염병할’은 무서운 ‘병’을 이용한 욕이다. ‘염병’은 한자 ‘染病’이다. 곧 ‘전염병’의 뜻이다. 그런데 ‘염병’은 특이하게도 ‘전염병’이라는 뜻 이외에 ‘장티푸스’라는 뜻도 갖고 있다.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병 가운데에서 이 ‘장티푸스’가 가장 무서운 병이었기에 전염병 하면 ‘장티푸스’가 떠올라 ‘염병’이 ‘장티푸스’를 가리키게 된 것이다. “염병에 까마귀 소리(불길하여 귀에 아주 거슬리는 소리)”와 같은 속담이 생겨난 것만 보아도 ‘염병’이 얼마나 불길하고 무서운 병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염병(즉, 장티푸스)’은 ‘티푸스균’이 입을 통해 창자를 침범하여 발병한다. 대체로 1~2주일이 지나서야 증세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몸이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아프며 열이 나기 시작한다. 이후 고열(高熱)로 치달아 2~3주일 계속된다. 여기에 설사까지 동반한다.

이쯤 되면 환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간에서는 땀을 내면 낫는 병으로 알려져 오뉴월에도 두꺼운 솜이불을 덮어쓰고 땀을 내느라 끙끙대곤 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염병에 땀을 못 낼 놈(염병을 앓으면서도 땀도 못 내고 죽은 놈)”이라는 속담이다. 염병을 앓고 나면 머리카락까지 모두 빠져 대머리가 된다. 그래서 “염병 치른 놈의 대머리 같다.”라는 속담도 생겨났다.

예전에는 ‘염병’이 이 병을 앓는 ‘염병쟁이’의 목숨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갔다.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좋은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어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취급되지만, 예전에는 이 병이 한번 들면 마을 전체가 축대밭이 되어 아주 무서운 병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 이 병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자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이 병에 대한 혐오는 이 병을 가리키는 ‘염병’이라는 말도 혐오하게 만들었다.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라는 상투적인 욕이나, ‘염병’을 이용한 ‘염병할 놈(년)’, ‘염병할’ 등과 같은 심한 욕이 생겨난 것만 보아도 ‘염병’이라

는 단어를 얼마나 혐오하고 박대했는지 알 수 있다.

‘염병할’이라는 욕은 ‘염병할 놈(년)’이라는 욕에서 후행하는 ‘놈(년)’이 생략된 것이다. ‘염병할 놈(년)’의 ‘염병할’은 ‘염병을 할’이 줄어든 어형이다. 이렇게 보면 ‘염병할 놈(년)’은 ‘염병을 할 놈(년)’에서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염병을 할 놈(년)’ 즉 ‘염병할 놈(년)’은 ‘걸리면 곧 죽음인 염병이나 앓을 놈’이라는 뜻으로, 특정인을 아주 미워하고 저주할 때 쓰는 욕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후행 요소 ‘놈(년)’이 생략된 ‘염병을 할’이나 ‘염병할’은 마음에 들지 않아 매우 못마땅함을 나타내는 뉘뜨리성 욕이다. 후행 요소가 생략되면서 욕의 기능이 달라진 것이다.

지금, ‘염병’은 흔하지도 않고, 또 걸리더라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그렇다면 ‘염병할 놈(년)’이나 ‘염병할’이라는 욕은 그 기능을 상실할 만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염병할 놈(년)’은 특정인을 무섭게 저주하는 욕으로, ‘염병할’은 매우 못마땅함을 나타내는 욕으로 쓰이고 있다. 욕의 생명은 그만큼 질긴 것이다.

3. ‘육시랄’과 ‘오사랄’

‘육시랄’과 ‘오사랄’은 ‘경을 칠, 난장맛을, 오라질, 오사랄, 육시랄, 주리를 틀’ 등과 같이 형벌 관련 단어를 이용한 욕이다. 이들 욕은 상대를 꾸짖거나 저주할 때 자주 쓰인다.

그 가운데에서도 ‘육시랄’과 ‘오사랄’은 상대를 꾸짖고 저주하는 정도가 심한 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죄 중에서 가장 중한(重-) 모반(謀叛) 죄를 지은 사람을 처단하는 ‘형벌’과 관련된 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시랄’이 ‘형벌’과 관련된 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어원설을 내 놓기도 한다. ‘육시’를 무슨 ‘布施’쯤으로 알고 ‘스님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육’을 한자 ‘肉’으로 보고 ‘육체를 토막 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아, 씨,

육시랄 해 분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육시랄’은 ‘육체를 토막 내는 것’이라는 뜻이다.

‘육시랄’이 ‘형벌’과 관련된다고 할 때 ‘육시’는 ‘六屍’ 아니면 ‘戮屍’이다. ‘六屍’는 사지(四肢)를 말에 묶은 뒤 각각의 말을 동시에 달리게 하여 머리, 몸통, 사지의 여섯 토막을 내는 형벌이다. 몸이 여섯 토막으로 찢긴다는 뜻에서 ‘六屍’라고 한 것이다.

한편, ‘戮屍’는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고 목을 베는 형벌’이다. 죽은 뒤에 역모를 꾸몄거나 그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 무덤을 파헤쳐 목을 베었다. 역모는 군주사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여서 역모자와 그 연루자는 죽어서까지도 극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형벌이므로 ‘부관참시(剖棺斬屍)’와 같다.

‘육시랄’의 ‘육시’는 ‘六屍’와 ‘戮屍’ 가운데 ‘戮屍’이다. 그런데 ‘육시랄’은 그 단어 구조가 아주 이상하다. ‘랄’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육시랄’은 ‘육시를 할’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다. 목적격 ‘-를’의 ‘르’가 탈락한 뒤 축약되어 ‘육실할’이 된 다음 ‘육실할’에서 제3음절의 두음 ‘ㅎ’이 탈락하여 ‘육시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육시를 할’은 단어 구조상 뒤에 ‘놈’이 생략된 표현으로 보아 틀림이 없다. ‘육시를 할 놈’이 그 본래의 어형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육시를 할 놈’에서 ‘육실할 놈’이 나오고, ‘육실할 놈’에서 ‘육시랄 놈’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서 후행하는 ‘놈’이 생략되어 ‘육시를 할’, ‘육실할’, ‘육시랄’이라는 욕이 만들어진 것이다.

‘육시를 할 놈’은 대역죄를 지어 부관참시를 당할 중죄인이다. 그런데 중죄를 지은 ‘나쁜 놈’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어 큰 잘못을 저지른 일반인까지도 그렇게 욕을 한다. 말하자면 ‘육시를 할 놈’을 비롯하여 ‘육실할 놈’, ‘육시랄 놈’이 특정인을 비난하는 욕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육시를 할 놈’, ‘육실할 놈’, ‘육시랄 놈’에서 ‘놈’이 생략된 ‘육시를 할’, ‘육실할’, ‘육시랄’은 특정인을 정해 놓고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욕이 아니다. “무슨 되는 일이 있어야지. 육시를 할/육실할/육시랄.”과 같은 문장

에서 보듯, 어떤 상황을 심하게 저주하거나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스스로의 불만을 표출할 때 쓰인다. 저주나 한탄의 욕인 것이다. 못마땅한 심리를 좀 더 극대화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제3음절의 모음을 바꾸어 ‘육시랄’이라고도 한다. 이는 ‘오라질’을 ‘우라질’로 바꾸어 표현하는 심리와 같다.

‘오사랄’은 ‘오살할’에서 제3음절의 두음 ‘ㅎ’이 탈락한 어형이다. 그리고 ‘오살할’은 ‘오살을 할’에서 목적격 ‘-을’의 ‘으’가 탈락한 어형이다. 이렇게 보면 ‘오살을 할’이 ‘오살할’로 변하고 ‘오살할’이 ‘오사랄’로 변한 것이 된다. ‘오살을 할’의 ‘오살’은 ‘五殺’이다. 죄인의 머리와 팔다리 다섯 군데를 토막 내어 죽이는 형벌이어서 ‘五殺’이라고 한 것이다.

‘오살을 할’은 본래 ‘오살을 할 놈’ 구조에서 ‘놈’이 생략된 표현이다. 곧 ‘오살을 할 놈’이 그 본래의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살을 할 놈’이 ‘오살할 놈’으로 변하고, ‘오살할 놈’이 ‘오사랄 놈’으로 변한 것이 된다. 이들 구조에서 후행하는 ‘놈’이 생략되면 ‘오살을 할’, ‘오살할’, ‘오사랄’이라는 또 다른 욕이 만들어진다.

‘오살을 할 놈’은 반역죄를 지어 ‘五殺’이라는 극형을 받을 중죄인이다. 그런데 중죄를 지은 ‘나쁜 놈’이라는 점이 크게 강조되어 큰 잘못을 저지른 특정인을 비난하는 데에도 이 욕이 쓰이게 된다. 특정인을 심하게 비난하는 욕이 된 것이다.

그런데 ‘오살을 할 놈’, ‘오살할 놈’, ‘오사랄 놈’에서 ‘놈’이 생략된 ‘오살을 할’, ‘오살할’, ‘오사랄’은 특정인을 비난하는 욕이 아니다. “오살을 할/오살할/오사랄! 그 여자가 나를 배반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에서 보듯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한 상황을 비난하고 저주할 때 쓰는 욕인 것이다. ‘육시를 할/육실할/육시랄’과 욕의 기능이 같다.

4. 후레자식

‘후레자식(아들)’이나 ‘호로자식(아들)’은 ‘배운 것 없이 막되게 자라 버릇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나, 실제로는 경멸적 감정까지 보태어져 더욱 나쁜

의미로 쓰인다. ‘자식’이나 ‘아들’을 이용하여 속된 욕설을 만든 배경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옛 문헌에서 ‘후래자식’이나 ‘호로자식’과 관련된 단어를 찾기는 힘들다. 19세기 말에 출간된 <韓英字典>(1897)에 보이는 ‘홀에자식’이나 20세기 이후에 한글학회에서 펴낸 <큰사전>(1957)에 보이는 ‘홀의아들’이 그나마 그 원형에 가까운 어형들이 아닌가 한다. 그 어원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듯 대체로 세 가지 어원설이 전해진다.

첫째는, ‘홀에’나 ‘홀의’를 오랑캐를 뜻하는 ‘호노(胡奴)’ 또는 ‘호로(胡虜)’로 보는 것이다. 흉노족을 비롯한 몽고족이나 만주족과 같은 이민족의 행패가 오죽했으면 ‘홀에’나 ‘홀의’를 오랑캐를 뜻하는 말로 간주했을까마는, 이 설은 오랑캐가 밟던 차에 우연히 음(音)이 비슷한 ‘호노(胡奴)’ 또는 ‘호로(胡虜)’를 연상하여 그것과 연계시켜 해석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 한다.

둘째는, ‘홀에’나 ‘홀의’를 ‘조롱박’을 뜻하는 ‘호로(葫蘆)’로 보는 것이다. 이 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기초한다.

중국 한나라 때 ‘호광(胡廣)’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본성이 ‘황(黃)’이다. 이 사람은 5월 5일에 태어남으로써 부모가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여 ‘호로(조롱박)’에 넣어 냇가에 버렸다.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이 거두어 길렀는데 ‘조롱박’에 들어 있었다고 하여 ‘호로’라는 성을 붙였다. 부모가 없고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주 큰 욕이므로 ‘호로’라는 말이 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설 또한 ‘호로’와 ‘홀에’나 ‘홀의’가 음이 비슷한 데서 생겨난 억지 해석일 뿐이다.

셋째는, ‘홀어미의 자식(아들)’이 줄어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설은 “홀어미의 자식(아들)은 사귀지도 마라.”는 속담에 기대어 푼 것인데 ‘홀어미의 자식(아들)’이 줄어들어 ‘홀의자식(아들)’이 되기는 만무하나 의미는 그런대로 통한다.

이들 세 가지 잘못된 어원설은 ‘홀에’나 ‘홀의’의 정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게 한 데서 빚어진 결과이다. ‘홀에자식’이나 ‘홀의아들’의 ‘홀’은 ‘홀어미, 홀아버’에 보이는 ‘홀’과 같은 것으로 15세기에는 ‘홀어미, 홀아버’에서 보듯 ‘홀’로 나온다. ‘홀어미, 홀아버’는 ‘홀’이라는 명사에 ‘어미, 아버’가 붙은 어형인데, 여기서 ‘홀’은 ‘짝이 없는 하나’라는 뜻이다.

‘홀에자식’과 ‘홀의아들’의 ‘홀’이 ‘홀’로 소급하는 명사라면 ‘-에’와 ‘-의’는 명사 ‘홀’과 ‘자식(아들)’의 관계를 표시하는 속격 조사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홀 것의 자식(아들)’ 즉 ‘어머니 혼자서 키운 자식(아들)’이라는 뜻이다. “아버 없는 후례자식(아버지 없이 제멋대로 자라 버릇이 없는 사람)”이라는 관용적 표현에서 ‘홀에’나 ‘홀의’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홀에’는 ‘후례’ 또는 ‘호래’로 변하여 ‘후례자식(아들, 새끼), 호래자식(아들, 새끼)’ 등에 남아 있고, ‘홀의’는 ‘호로’로 변하여 ‘호로자식(아들, 새끼)’에 남아 있다.

홀어미 혼자서 키운 자식이라고 모두가 버릇이 없을까마는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 없이 자란 자식들 중에 막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굳이 홀어미와 그 자식을 이용한 욕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III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욕설 어원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네미’는 ‘네 어미를(와) 붙을 놈’, ‘제미’는 ‘제 어미를(와) 붙을 놈’으로까지 소급한다. ‘네 어미를(와) 붙을 놈’에서 ‘네미’까지, ‘제 어미를(와) 붙을 놈’에서 ‘제미’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네 어미를(와) 붙을 놈 → 네미를(와) 붙을 놈 → 네미 붙을 놈 → 네미 붙을 → 네미
- ② 제 어미를(와) 붙을 놈 → 제미를(와) 붙을 놈 → 제미 붙을 놈 → 제미 붙을 → 제미

(2) ‘네밀할/네미랄’은 ‘네 어미를 할 놈’, ‘제밀할/제미랄’은 ‘제 어미를 할 놈’으로까지 소급한다. ‘네 어미를 할 놈’에서 ‘네밀할/네미랄’까지, ‘제 어미를 할 놈’에서 ‘제밀할/제미랄’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네 어미를 할 놈 → 네밀할 놈 → 네미랄 놈 → 네밀할/네미랄
- ② 제 어미를 할 놈 → 제밀할 놈 → 제미랄 놈 → 제밀할/제미랄

(3) ‘염병할’은 ‘염병(染病)을 할 놈(년)’으로까지 소급한다. ‘염병을 할 놈(년)’에서 ‘염병할’로까지의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염병을 할 놈(년) → 염병할 놈(년) → 염병할

(4) ‘육시랄’은 ‘육시(戮屍)를 할 놈’으로, ‘오사랄’은 ‘오살(五殺)을 할 놈’으로 소급한다. 그 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육시를 할 놈 → 육실할 놈 → 육시랄 놈 → 육시를 할/육실할/육시랄
- ② 오살을 할 놈 → 오살할 놈 → 오사랄 놈 → 오살을 할/오살할/오사랄

(5) ‘후레자식’은 ‘홀애자식’의 변형으로 추정되어 ‘홀 것의 자식’으로 해석된다. ‘여자 혼자서 키운 자식’이라는 뜻이다.

참 고 문 헌

- 金東縉(1927), “四千年間朝鮮俚語解釋”, 덕흥서림, 서울.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서울.
- 미상(1934), ‘朝鮮辭源漫談(三)’, “월간야담” 3호, 서울.
- 박일환(1994), “우리말 유래 사전”, 우리교육, 서울.
- 조항범(1998), ‘형벌 관련 욕설의 어원과 의미’, “방언학과 국어학”, 서울.
- 조항범(2003), “선인들이 전해 준 어원 이야기”, 태학사, 서울.
- 조항범(2004),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어원 몇 가지(1)’,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